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6)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손을 넣어 보니 웅달샘이 시리네

저는 지금 북경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호텔 안이나 주변에는 내 핸드폰에 접속할 인터넷이 보이지 않고, 잘 아는 청화대학 교수의 방에 갔지만, 이번에는 한글 파일을 열지 못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깔려 있지 않았습다. 어쩔사리 한국학생에게 노트북을 빌려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연재가 앞뒤가 없어지고, 불속 엉뚱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제 3차 다산학회에서는 이틀간 다산학을 둘러싼 많은 논점들이 부각되고, 해석들이 난무했습니다. 거기서 오고간 내용에는, 놀라지 마십시오. 불교 얘기가 한 축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산이 조선의 주자학을 넘어 실학의 새 시대를 연 선구자라는 것은 다들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시겠지만, 다산이 주자학을 비판한 논리가 바로, "주자학은 불교다"라는 것입니다. 조선조가 주자학의 이념에 젖어 불교를 그렇게 괴롭히고 탄압했는데, "그 주자학이 불교와 같다"니, 이런 생뚱맞은 얘기를 누가 곧이들겠습니까. 오늘은 이 문제를 둘러싼 곡절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자의 불교 비판
주자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12세기 송대를 살았습니다. 북방의 이민족인 요나라와 금나라에 치여 남쪽으로 쫓겨와 살았던 지식인으로서 나라를 다시 찾아야겠다는 열정에 불타는 열혈청년이었습니다. 또 한편 그는 당시에 크게 유행하던 선불교의 영향을 받아, 깨달음을 통해 일대사를 이루려는 개인적 열정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김지하 시인의 말에 빗대자면, 그는 요기와 코미사르의 두 열정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처음 당시에 유행하던 대혜(大慧)의 선을 접하고, 화두를 통해 명상을 하면서 인생의 진실과 세상의 이치를 한꺼번에 깨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가 불교 경전에 어느만큼 정통했는지는 모릅니다. 그가 <주자어류(朱子語類)> '석씨편(釋氏篇)'에서 인용하고 있는 불교 경전들은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42장경> 등의 초기경전과 <반야경>, <수능엄경> 정도... 그가 주로 읽고 씨름한 것은 선(禪)의 문헌들입니다. 그의 교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불교를 세 단계로 정돈합니다. 첫

단계는 <42장경> 등의 일상적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주자는 이때가 불교가 가장 건전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부터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는 공(空)을 중심으로 한 대승의 가르침이 중국에 들어와 번성하면 이때를 불교의 일차적 타락(?)이라고 평가합니다. 심지어 그는 대승은 노장의 사교를 교묘히 다른 방식으로 차용한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최근 토마스 머튼 등도 중국불교가 노장의 어머니와 인도불

그러나 주자는 불교의 진리적 측면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제 이 말에 다들 당황하실 것입니다. 상식은 "불교를 부순 자리 위에 주자학이 서 있다"고 믿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자는 불교를 부순 적이 없습니다. 만일 부순다면, 그의 철학 또한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산은 이 지점을 선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도 "주자학은 불교다"라고 내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의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의지와 욕망으로 하여 뒤떨어 있으나, 그 근본은 본래 맑고 향기로운 본성을 누구나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우리 속의 이 공의 실재를 찾아가는 일입니다.

이 점에서 주자학과 불교는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용어는 좀 바뀌었습니다. 공(空)이 무극(無極)으로 바뀌었고, 불성(佛性)이 본성(本性)으로 바뀐 것이 그렇고, 업장(業障)이 기질(氣質)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은 주자학에서는 경(敬)으로 탄생했습니다. 좀 심한 억지가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자는 경을 해설하면서 아예 서암 화상의 주인공 화두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즉 경(敬)이란 상성성(常惺惺), 즉 늘 깨어있는 마음의 각성상태라고 분명히 짚어두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경(敬)은 유교 안에서 예전에는 어르거나 하늘에 대한 헌신을 뜻했습니다. 주자는 이것을 과격하게 자기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투명하게 바라보는 심리적 각성상태로 치환했고, 나아가 이 훈련이 주자학 수련의 핵심 가운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 따라 퇴계가 평생을 이 일에 매달린 것을 다들 들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자는 그 경의 지속적 파지(把持)를 통해 자신의 진정한 본성(性)을 만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 또 덧붙여야겠군요. 성(性)이란 일반적으로는 특정한 심리적 경향성을 말합니다. 그것은 어떤 실체의 특성(用)이지 그 자체 어떤 실체(體)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주자는 이 성을 경향성으로부터 실제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뒷면이 또 불교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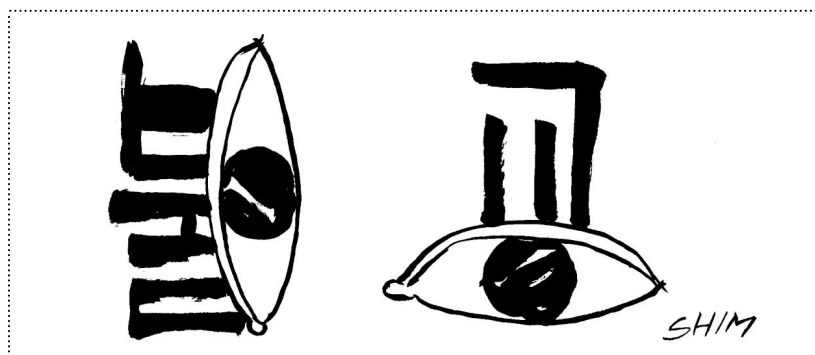
이렇게 주자학이 불성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발견'으로서의 구원을 자신의 체계의 중심에 세운 점에서, 그는 '반쪽'이 아니라, 근본을 불교로부터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선의 선비들이 들으면 필적 뉘그러나,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다산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율곡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금강산을 내려오면서, 주자가 그랬듯이 다른 반쪽을 더 강조하면서, 불교더러 유교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습니다. ■한학중앙연구원

이런... 주자학의 반쪽이 불교라니

교의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훌륭한 아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과 화두의 번성입니다. 주자는 불교가 이 단계에 와서 합리적 수행과 도덕적 교화하기를 그만두고, 황당할 얘기를 심각한 표정으로 선포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해 나갑니다.

주자학이 배운 불교
각설, 주자는 그러나 이 표면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핵심에 갖고 본질적인 영향을 받았습다. 그가 불교를 비판하고 있는 요점은 주로 '사회적' 측면에 관한 것이지만 '진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신성한 절에서 고리대금도 하고, 술도 만들고 파는 등의 병폐를 지적합니다. 나아가 한 청년이 가족을 버리고 머리를 깎는 것을 윤리적으로 비난하고, 또 그가 사회로부터 절연하여 자기만의 공간 속으로 유평되는 것을 사회정치적 관점에서 우려합니다.



천천히 다시 이 문제를 따져봅시다. 주자와 불교가 만나는 지점, 다시 말해서 주자가 불교의 근본을 체화한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때 주자가 든 예가 바로 차가운 웅달샘의 비유입니다.

웅달샘은 다만 맑고 투명해서 거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샘은 다만 공(空)입니다. 주자는 세상이 그리고 우리의 본성이 공이라는 불교의 근본 언설에 전폭적으로

연기(緣起)는 조리(條理)로 바뀌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수련법도 불교의 핵심을 차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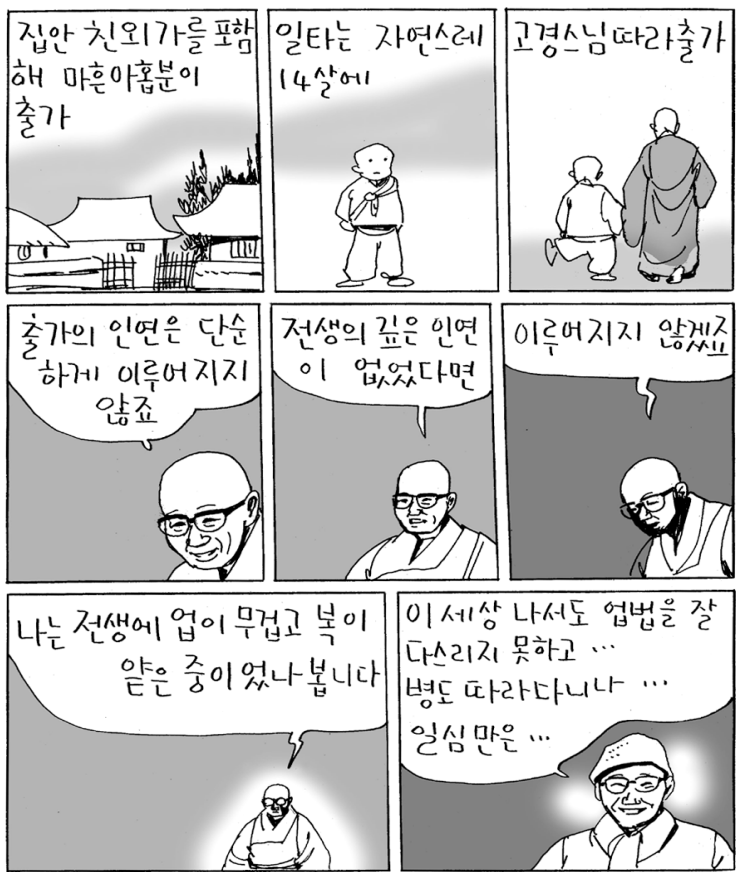
발견으로서의 구원
제가 언젠가 팔정도 가운데 정념(正念)을 해설하는 자리에서, 이 사티가 위빠사나의 바탕이며, 또 주자학에 수출도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정념

주장사파라...

⑧ 일타 선사사의 '출가인연'



조태호



동곡 일타(東谷日陀:1929~1999): 1942년 통도사에서 출가.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대화상·원로회의 의원 등 역임.

네터즌 교리문답

깨달음에 시비가 끊이지 않는 이유?

문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이후 숱한 분들이 깨침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깨침의 경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여 정말 저 분들이 깨쳤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시비가 예로부터 불교계에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침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문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보현)

답1: 깨침에 대해 논란이 분분한 것은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분들의 행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깨달음을 살리는 만큼의 행이 따라가지 못하는 탓에 깨달음에 대한 시비바비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탐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모든 재정의 근원인가'를 뼈저리게 깨달은 분이려면 적어도 그런 탐욕에 초연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깨달어도 열두 번은 더 깨달은 것 같은 분이 막상 일이 닥치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저 분이 정말로 깨친 분인가?' 하는 생각이 일반인들에게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학자)

답2: 진심(真心, 성내는 마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모든 것이 공(空)하지 않음을 투철하게 보신 분이려면, 그까짓 못마땅한 일 등에 굳이 화를 낼 까닭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멀쩡하신 분들이 자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고함을 치고 화를 내는 경우 또한 종종 목격합니다. 이러니 법문이 아무리 훌륭한 듣는 분들이 신심이 나겠습니까?

어리석음(癡心)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제법(諸法)의 공함을 살피시는 분들이 실지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이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적어도 깨친 분들의 모습치고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진실로 깨쳤다면 내 행 하나 하나에 깨침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금강소석)

답3: 깨달음의 시비를 끊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수행자는 길을 걸을 때도, 숨을 쉴 때도, 남과 얘기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낯을 만날 때도 언제나 여유하게 깨달음의 경계를 곳곳에 현실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여법한 밝음을 보일 때, 수행자는 비로소 끝없는 소모적인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깨달음)

부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 | | | | | |
|---|----|----|----|----|----|
| 1 | | 7 | | 8 | |
| | | | 2 | 9 | |
| | | | | | 10 |
| 3 | 11 | | | 4 | 12 |
| | | | 13 | | |
| | 5 | 14 | | 15 | |
| | | | | 6 | |

정답은 26면에

상식퍼즐

가로
1.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피닉스'를 이르는 말 2. 1954년 11월 29일 자유당이 헌법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권법적인 논리 3. 승적을 박탈하는 것 4. 인도와 위 사이에 있는 긴 관으로, 삼킨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 5. 높고 험한 바위가 겹겹이 쌓인 낭떠러지 6. 수나사가 들어가도록 구멍 안쪽에 나선형으로 홈이나 있는 나사.

세로
1.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 비슷한 말 불생불사 7. 한 종파를 세우고 그 종지를 열어 주장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8. 음력 5월 5일로 수릿날이라 칭함 9. 강바닥이나 해안의 모래에 섞여 있는 금 10. 안가에 들어가기 전에 결사하는 의식 11. 물질?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계층 12. 팔 물건들을 여러 곳으로 가지고 다니며 하는 장사 13. 뼈와 뼈가 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부분 14. 작은 절 15. <근화결의>를 저술한 조선시대 각성 스님의 호.